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읍내로 향하는 부부.



마당에서 눈을 치우며 서로를 닮은 눈사람을 만들어 주는 모습.

님아, 진짜 사랑을 봤습니다

손을 꼭 부여잡고 걸으며 ‘고맙다’ 말하며

서로에게 바라지 않고 욕심도 없는 삶 감동

영화 리뷰/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너무 행복해 보여서 눈물이 났고, 너무 슬퍼서 또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사이 두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주는 여운은 그만큼 길게 남았다. 지난 13일 광주CGV 터미널점에서 열린 진모영 감독과의 대화에 앞서 영화를 본 관객들의 눈시울도 하나 같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기자도 두 번째 관람이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영화는 극적이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낙엽이 떨어지면서 계절이 소리없이 조용하게 변해듯 삶을 살아가는 강계열(89) 할머니와 고(故) 조병만(98) 할아버지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 뿐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또 많은 것을 배워간다.

진모영 감독의 말처럼 천 송이 장미꽃을 선물하는 이벤트도 없다. 서로에게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

는다. 욕심도 없다. 강계열 할머니와 조병만 할아버지는 서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손을 꼭 부여잡고 함께 길을 걸을 뿐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할 뿐이다. 영화는 말한다. 삶도 그런 것이라고. 두 분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듯 누군가와 함께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서로의 잠든 모습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얼굴을 쓰다듬는 장면, 먼길을 걸으며 절대 손을 놓지 않는 두 노인의 모습, 서로의 안부를 묻는 두 분의 대화는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게 한다.

영화에서는 할머니의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큰아들과 큰딸이 부모님의 안위를 걱정하며 연성을 높이고, 결국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참았던 눈물을 보이려고 한다. 명절에 모이면 싸우는 우리네 가족들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진 감독은 자녀 중 한분이 “묘한 느낌이 있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나. 우리집만 그렇지 않은

리라고 생각한다. 모여야 싸운다. 좋은 날 모이게 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죽음을 준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태도다. “꽃이 피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을이 되듯, 사람이 나이도 많아지면 겨울이 되듯, 그러면 헛일이지”라던 조병만 할아버지의 말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담담하게 마주한다. 가장 형편이 어려워 먼저 떠나 보낸 자식들의 내복을 준비하고 할아버지에게 “저승에 가면 꼭 어미가 보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한 옷을 먼저 태우고, 새옷은 나중에 태워 저승에서도 할아버지가 좋은 옷만 입고다닐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별하는 방법조차도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할머니의 삶을 엿볼 수 있다.

13일 영화를 관람한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은 소감을 묻자 “사랑은 정직한 농사(農事)/ 이 세상 가장 깊은 데 심어/ 가장 늦은 날에/ 싹을 보느니”라는 시로 대신했다.

이어 “사랑은 지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육체적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정신적으로 교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인지자 kki@kwangju.co.kr

올 겨울 극장가는



마다가스카의 펭귄

뽀로로 눈요정 마을 대모험

31일 개봉 마다가스카의 펭귄

우주로봇 씨어·일곱난쟁이 등

겨울방학을 앞두고 다양한 애니메이션이 앞다퉈 개봉하고 있다. 최근 1000만명을 돌파한 ‘겨울왕국’의 성공으로 아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애니메이션이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두 주자는 단연 ‘뽀통령’이다. 지난 11일 개봉한 토종 애니메이션 ‘뽀로로 극장판 눈요정 마을 대모험’은 ‘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통하는 뽀로로의 신작이다.

세상에 눈을 뿌리는 ‘눈요정 마을’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위협하는 용암 괴물에 맞선 꼬마 펭귄 뽀로로와 친구들의 모험을 그리고 있다.

전편 ‘뽀로로 극장판 슈퍼썰매 대모험’(2012)은 93만 관객을 모았다. 3D 상영관을 포함한 특별상영관과 특별좌석을 제외하고 어린이·어른, 평일·주말에 관계없이 관람료는 5000원이다.

‘뽀로로’에 맞서는 또 다른 펭귄이 있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의 펭귄’에 등장하는 악동 펭귄 4총사다. ‘마다가스카의 펭귄’을 할리우드 명가 드림웍스의 흥행작 ‘마다가스카’ 시리즈 4편으로, 1~3편은 전 세계에서 18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올렸다.

동화 ‘백설공주’를 재해석해 난쟁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애니메이션 ‘일곱난쟁이’는 오는 24일 개봉한다.

‘어마무지 좋은 왕국’ 로즈 공주의 생일날, 백설공주와 장화신은 고양이 등 전 세계 동화 속 주인공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성대한 파티가 열린다는 참나, 막내 난쟁이 보보의 실수로 모두가 얼음으로 변해 버린다.

일곱난쟁이는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하고자 예측할 수 없는 모험의 길을 떠난다.

아이들 그룹 비벌레이프(B1A4)의 바로가 막내 난쟁이 보보의 목소리 연기를 맡았다.

오는 18일 개봉하는 ‘쥬로링 동물탐정 극장판’은 사라진 반려동물을 찾아 나서는 좌충우돌 동물탐정의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 쥬로링 동물탐정은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하다 최고의 반려동물을 뽐내는 마을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은 동물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결그룹 씨스타의 소유가 주제곡 ‘다이아몬드’(Diamond)를 불러 화제가 된 ‘눈의 영화 2 : 트롤의 마법거울’은 스노우 킹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하려고 결성된 올름과 트롤 기사단의 모험을 그린 3D 애니메이션이다. 25일 개봉 예정이다.

오는 18일 개봉하는 중국 애니메이션 ‘우주로봇 씨어’는 우주로봇 ‘조이’와 엘프 ‘몬타’가 우주 정복을 꿈꾸는 해적단에 납치된 ‘몬타’의 아빠를 구하려고 신비로운 우주 은하계를 떠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내년 초에도 애니메이션의 개봉이 잇달아 잡혀 있다. ‘겨울왕국’으로 애니메이션의 흥행 역사를 새로 쓴 디즈니의 신작 ‘빅 히어로’가 내년 1월 22일 국내에 선보인다.

천재 공학도 형제 ‘데다’와 ‘히로’가 만든 힐링로봇 ‘베이맥스’가 슈퍼히어로로 거듭나는 내용을 그린다.

이밖에 포켓몬스터 XY 시리즈의 첫 번째 극장판인 ‘극장판 포켓몬스터XY : 파괴의 포켓몬과 다인사’는 내년 1월 15일에, 원작자 탄생 8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3D 도라에몽’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 스타바이미’는 내년 2월12일에 각각 국내 개봉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

/연합뉴스



뽀로로 극장판 눈요정 마을 대모험.

미디어 아트 흐름 한 자리에

강진아트홀 31일까지
‘미디어극장 2011-2013’전



김창겸 작 ‘Water shadow-the four seasons’

미디어 아트의 흐름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강진에서 열리고 있다.

강진아트홀이 오는 31일까지 ‘미디어극장(Welcome to Media Space) 2011-2013’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아트스페이스 정미소의 ‘미디어극장 2011-2013’전이 한국문화재단연합회 ‘우수 전시 개최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열리게 됐다.

‘미디어극장’전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갤러리 정미소의 ‘KOREA MEDIA ART PROJECT’의 전시 섹션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비디오, 미디어아트의

역사를 작가, 작품, 그 시대의 담론으로 들여다보고, 동시대 한국 현대미술로서 비디오, 미디어아트의 현주소를 살피기 위해 기획됐다. 80, 90년대부터 꾸준히 비디오작업을 진행해 왔던 세대를 포함해 현재 젊은 작가군들을 조망하는 전시로 진행된다.

80년대 최초로 영상작업을 제작한 작가군부터 현대 미디어아트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작가들의 작업을 만날 수 있다.

참여 작가는 육근병·김창겸·김희선·김해민·김병호·한승구·정정주·민·류호열·오용석·박준범·박재성·염지혜씨 등 13명이다. 문의 061-430-3972.

/김정인지자 kki@kwangju.co.kr

연말 송년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가족모임

세미나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2014년12월15일~2015년 3월15일 제주도여행폭탄세일

나눔제주여행을(2박3일) ₩109,000원에게만♪

선택(씨스타크루즈)08:50목포항출발 ₩109,000원~

수화공(아시아나)15:40제주공항출발 ₩189,000원~

1일째

선택 08:00 목포항집결 13:30제주항도착직원미팅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릭아트

중식:자유식

석식:호텔식

2일째

조식후-아침이 아름다운바다~외돌개 올래6,7코스트래킹

서커스월드or코끼리코스(현지직불)

HOTER: 일반호텔(4~6인실)

중식:호텔식

석식:현지식

3일째

선택 16:00 제주항도착 17:00출발

제주성읍민속박물관-제주도자연환경-제주도자연환경-제주도자연환경

중식:호텔식

석식:현지식

2015년 해맞이 제주성산일출봉 선상해맞이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트래킹

2014년12월30일~2015년01월01일 을미년(2박3일) 특별회원가₩220,000원

1일째

06:30광주역출발-08:50목포항출발

13:30목포항도착미팅-한라수목원-도깨비도로

용두암-용연(흔들흔들구름다리) 숙소: 일반호텔(4~5인실)

조식:간편하게

중식:현지식

석식:호텔식

2일째

조식후-07:30출발-08:40도착-09:00에막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트래킹(약2시간30분)

중식후-서연고(세로로인연을맺는곳) - 감귤타기체험-석부적테마농원

약천사-서커스월드(해피타운) 숙소: 일반호텔(4~5인실)

조식:호텔식

중식:호텔식

석식:호텔식

3일째

2015년01월01일 조식후-05:30출발성산일출봉선상해맞이(유람선)

섬지코지-에코랜드, 기차타고자연원시림으로

중식후-제주민속마을체험

농수산판매장-해녀촌, 석식(전복죽)

16:00제주항도착미팅출발

21:30목포항도착

22:50광주역도착

조식:떡국

중식:

석식:전복죽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무박2일, 1박2일 회원님을모십니다

기간: 2015년 1월10(토)~2월01(일)까지 장소: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무박2일

출 발 지: 광주역23:00집결, 23:30출발

포함사항: 전용버스, 입장료, 주차비, 조식, 중식(상품권), 여행자보험

회 비: 주중 ₩89,000원 주말(금,토,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08:00출발-남이섬-강원도화천군속박

2일째 ▶ 조식후-산천어축제장-15:00출발-광주

포함사항: 전용버스, 전일정입장료, 숙박(모텔4인1실), 주차비, 식사4식(중식2회, 석식1회, 조식1회), 여행자보험

회 비: 주중 ₩169,000원 주말(금,토,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 문병구 HP: 010-3999-3226

특별 산천어 축제 첫해 특별회원 특별 07:30 광주역 08:00에 도착 08:10 출발합니다. 문의: 문병구 HP: 010-3999-3226

※문의처: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북구효산로5 ☎062)267-8580 ★ 담당자: 문병구H,P:010-3999-3226 FAX:062-267-8581